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3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 <말(馬) 달리자>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KBS 특별생방송 희망 2012 나눔이 사랑입니다 1부	00 여유만만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강	0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애정만세> (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00 스타 인생극장 스페셜 1~2부 (재)	00 MBC 뉴스 15 창사주간 베스트 무한도전 조정국집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
1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30 도전! 슈퍼대대(재)
2	00 KBS 특별생방송 희망 2012 나눔이 사랑입니다 2부	10 의뢰인 K (재)	55 창사주간 베스트 MBC플러스 걸작선 <마이 맨>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50 채널A 방송개시 30년 기념특집	50 KBS 오늘의 경제	00 KBS 뉴스타임 05 유로링 동물탐험 (재) 35 출발! 모나리자호 미술탐험대	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재)
4	00 개국특집 다큐멘터리 792의 전설 <여기는 동아방송입니다>	00 TV 50년 앙코르 동아시아 생명탐험대 제1편 <초원의 오아시스>	00 TV 유치원 30 오후의 초록기방 (재)	00 스킨2고 30 푸르기 탐구생활
5	50 개국특집 다큐멘터리 <또 다른 신화, 채널A> 40 개국특집 합동개국축하쇼 <더 좋은 방송 이야기>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TV 50년 앙코르 가요톱 10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시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6시 뉴스매거진 50 고향을 부탁해 (첫회)	30 생방송! KBC 투데이
7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스타 인생극장 <김길수>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내달 꽃님이>
8	00 개국특집 <100초의 열정> 30 개국특집 <채널A 뉴스 830>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호루라기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방송! 1억 퀴즈쇼
9	30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세계 리더십이 비엔나>	00 KBS 뉴스9	55 수목드라마 <영광의 재인>	55 SBS 대기획 <부리깊은 나무>
10	30 개국특집 다큐멘터리 <하얀 목시록 그린란드> 1~2부	00 KBS 특별기획 <사회적자본> 제3편 50 아름다운 사람들		
11		00 KBS 뉴스라인 40 현장으로 동행	05 해피투게더	15 스타부부쇼 자자야
12	30 개국특집 공영실황 일다보 2011 런던 콘서트	25 KBS 뉴스 35 콘서트 필2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남독의 발견	35 나이트 라인

채널A, 세계 최초 그린란드 종단기 자연의 경고, 몸으로 확인하다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다. 그가 경쟁자 스콧을 이기고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개셀매였다. 개는 말보다 추위에 강하고 식량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개셀매도 기계문명의 발달 앞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11년 12월 1일 개셀매가 다시 돌아온다. '3극점의 사나이' 홍성택 탐험대장이 이끄는 탐험대를 통해서다. 홍성택 탐험대장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개셀매를 타고 그린란드 종단에 성공했다.



〈오늘밤 10시 30분 1·2부〉



■홍성택 탐험대장
“개셀매로 눈보라 뚫으며 3000km 중주 북극, 남극, 히말라야보다 더 어려웠다”

동아미디어그룹 종합편성TV 채널A는 홍성택 탐험대의 그린란드 횡단 전 과정을 함께했다. 52일간 3,000km 종단의 과정이 채널A 개국특집 다큐멘터리 '하얀 목시록 그린란드'에 생생하게 담겼다.

“처절하고, 무섭고, 두려웠다. 썰매견들이 동료견들을 잡아 먹는 모습을 보며 이리다 내가 잡아 먹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홍성택은 하얀 정글 그린란드를 끝내 횡단해냈다.

탐험대를 이끈 홍성택은 1994년 남극점, 1995년 에베레스트, 2005년 남극점 정복에 성공한 우리나라 대표 탐험가다. 온갖 극한 상황을 겪어왔을 그는 그린란드 탐험의 4가지 요소를 꼽았다. 그가 꼽은 요소는 바람, 추위, 크레바스(거대한 빙하나 눈 골짜기에 지각 변동이나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거대한 균열이나 깊은 틈), 그리고 고독이다.

개셀매 역시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잘 훈련된 개들이 풀이 썰매를 끄는 영화 속 모습은 오산이다. 이성과 현실은 달랐다. 홍

대장은 썰매견들이 동료견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며 “이리다가 내가 잡아 먹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얀 목시록 그린란드”는 탐험대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변해가는 그린란드의 환경도 함께 다룬다. 3,000m 높이의 빙하가 녹아내려 강을 이루고 6월의 낮 기온은 영상 20도가 넘는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그 역할을 채널A와 홍성택 탐험대가 수행하고자 한다.

길 위에서 만나는 1만 년 전 원시의 자연도 장관이다. 드넓게 펼쳐진 설원과 질푸른 바다, 그린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북극의 사람들 등 ‘하얀 목시록 그린란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야기다.

“하얀 목시록 그린란드”는 치열한 생존기



요, 변해가는 지구 환경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또한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기도 하다. 홍성택 탐험대가 전하는 그린란드 이야기는 오는 12월 1일 채널A에서 확인할 수 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가부 간의 진위를 정확히 해야겠다. 48년생 자녀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 60년생 집착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72년생 내적인 충일에 마음을 써라. 84년생 안전한 체하는 사람의 이중성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41, 73	3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49년생 경사가 나겠으니 잔치 준비를 해 주라. 61년생 추진하고 있는 일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라. 73년생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자를 말라. 85년생 처우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83, 65	38년생 중심을 잡으면 만사가 평안하리라. 50년생 고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62년생 같이 어울려서 웃고 있는 것만 마음을 불편하다. 74년생 남들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음이 옳다. 행운의 숫자: 59, 62	39년생 잘 관리해 주면 크게 복되리라. 51년생 마음이 불 푸른 소나 무처럼 변함없는 친구가 찾아와라. 63년생 은사님과 은인을 찾아 뵈고 안부를 여우어라. 75년생 소원해 왔던 바를 이룰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76, 11	40년생 사소한 연영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아픔이다. 52년생 현재 보이는 시각 자료에만 의존하여 속단하면 곤란하다. 64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76년생 결정했으면 강력히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90, 81	41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53년생 예리한 시각과 주도면밀한 판단력이 결실할 때다. 6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77년생 집착할수록 잃고 초연할수록 얻느니라. 행운의 숫자: 46, 69
42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인내하라. 54년생 의무를 다하여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자. 66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78년생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으니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17, 77	43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액을 면한다. 55년생 상대의 주장을 못이긴 채하듯이 들어 줄 필요가 있다. 67년생 크게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79년생 안전하지 않은 지시는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72, 25	44년생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니 행복하다. 56년생 물건을 손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68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이익이 생길리다. 80년생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세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82, 47	45년생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 57년생 경직보다 더 풍요로운 재산은 없느니라. 69년생 가끔씩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익이 생기고 행운이 따른다. 81년생 크게 한숨 살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55, 91	46년생 작은 병도 조심해야 한다. 58년생 고정적인 것보다는 유동적인 것이 더 낫다. 70년생 시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 있다. 82년생 매력은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지만 재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행운의 숫자: 24, 69	47년생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59년생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느니라. 71년생 실수로 인해서 혼동할 수도 있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83년생 마음을 바르게 써야 복을 받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66, 34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격비독대회

준결승 1극 총보 (1~180)

黑 최영호 5단 白 김광식 5단 (포스크) (주승률)

김광식 5단 결승 선착

개인전은 단체전에 비해 부담이 더하다. 단체전은 팀원들을 믿고 마음을 비워 차분하게 시합에 임할 수 있지만 개인전은 오로지 의지할 곳은 자신 뿐이다. 더군다나 토너먼트는 언제나 지면 끝장인 벼랑 끝 승부라서 긴장감이 더해 경험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판은 아마추어경전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김광식 5단이 경험이 부족한 최영호 5단에 비해 우세하리라는 전망이었고 이 같은 예상은 그대로 적중되었다.

최영호 5단은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기세 좋게 출발했으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초반 좌변이 점전에서 64로 한판뒤편이 않은 후 63이 무거워서 고전을 자초하고 있다. 이후 후 69로 강력하게 역습하는 등 반전을 노려왔으나 역시 김광식 5단은 명성대로 노련하게 백 96, 98로 끊어 상대를 당황하게 한 다음 이 과정에서 흑 아홉점을 사로잡아 승세를 확립하고 있다.

우변에서 백이 130으로 두어왔을 때 흑 131로 후퇴한 수가 마지막 패착이 되었다. 이 수로 '가'에 치발아 선수를 잡고 우상귀를 지켰으면 추격의 여지가 있었다. 김광식 5단의 완승국이라 할만하다. 백 180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 (본보 비독해설위원)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데면데면하다 / 뽀뽀하다</p> <p>내 말 이 사실 입이 드러나자 뽀뽀한지 더 이상 말을 붙여 오지 않았다.</p> <p>회의 시간에 늦어 회의 도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는 바람에 뽀뽀해서 혼났어요.</p> <p>일상대화에서나 텔레비전 자막에 자주 등장하는 '뽀뽀하다' 표현은 '(속되게) 민망하고 어색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상황을 보면 대개 뭔가 어색하거나 서먹서먹하고 또는 계면쩍게 느끼는 그런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뽀뽀하다'는 표현은 사전에 없는 비표준어입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쓰이다가 일상적인 말로 굳어져서 대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데면데면하다'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우체국 가는 길을 알려 주시겠습니까?</p> <p>A: Excuse me.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please? B: Sure. Just walk down this street until you get to the office station. Then turn right and keep going for about two blocks. The post office is just across from the bank. A: Thanks a lot. B: It's my pleasure.</p> <p>A: 실례합니다. 우체국 가는 길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B: 그러죠. 이 길로 꼭 가세요. 역에 도달할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리고 약 두 블록을 더 직진하세요. 우체국은 은행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A: 감사합니다. B: 물론요.</p> <p>* turn right = 오른쪽으로 돌아 * keep (on) ~ing = 계속해 ~하다</p>	<p>捧着金饭碗要飯 금그릇을 들고 구걸하다</p> <p>‘금그릇(金飯碗)을 들고서(捧着) 밥구걸을 한다(要飯) pēngzhe jīnfānwǎn yàofàn’라는 표현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서도 생계를 유지 못하거나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중국속담입니다.</p> <p>높은 권세나 지위 그리고 많은 물질적 혜택을 갖고서도 현실에 불만족하고서 더 얻고 싶은 경우 등 사회내의 유사한 각가지 풍조를 힐난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구요. 같은 말로 端着金饭碗讨饭 duānzhe jīnfānwǎn tāofàn라는 표현이 있습니다.</p>	<p>どの學院が いいですか。 어느 학원이 좋습니까</p> <p>A: 金さん、どこへ行きますか。 B: 日本語學院を調べに市内へ行きますが、どの學院が いいですか。 A: 日本語なら、やっぱり 飛鳥が いいですよ。先生も親切だし、プログラムも 多様ですからね。 B: 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p> <p>A: 김씨는 어디에 가세요. B: 일본어 학원을 알아보러 시내에 갑니다만. 어느 학원이 좋습니까. A: 일본어라면 역시 아스카가 좋아요. 선생님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니까요. B: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p>
<p>〈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p>